

불임 상담실 -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?



황경진 그레이스병원 원장

저는 27세에 결혼한 여성입니다. 결혼한 지 2년이 되어도 임신이 안 되어 부친에 있는 산부인과에 찾아가했습니다.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 보시더니 나팔관이 모두 막혀서 정상적인 임신은 안 되고,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순간 얼마나

놀랐는지요. 말로만 듣던 불임이 바로 제 자신의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얼마 동안은 혼자 괴로워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.

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가거나 손잡고 가는 것만 보아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, 왜 나만

저런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으로 우울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,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나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친구 역시 한 때 아기가 없어 고생하다 그레이스병원 불임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더욱이 친구도 저와 같이 나팔관이 막혔는데 수술하지 않고 뚫기만 해서 자연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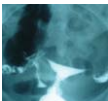
다음날 저는 친구와 함께 일산의 그레이스병원 불임클리닉 원장님을 만났습니다. 원장님은 나팔관 검사를 다시 하시더니 한 번 더 치료를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. 만약 잘 안 되면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야 할

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.

X-ray실에서 나팔관을 보면서 한참 이리저리 기계를 넣어 만지시더니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. 아난게 아니라 막혔던 나팔관이 뚫려 모니터에 실감이 허얏게 모양이 나타났습니다. 수술도 하지 않고 나팔관이 깨끗이 뚫리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던지요.

그 후로 저는 정말 자연임신을 했습니다. 1년이 지나 자연히 둘째 아이가 들어섰는데 임신 7개월이 되자 남편의 직장이 마침 그레이스병원이 있는 일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. 저와 그레이스병원과는 인연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배가 불러서 다시 병원을 찾은 저를 박사님과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.

● 황경진 박사의 진료 소견 -----



위 환자분은 나팔관 검사에서 양쪽 나팔관 근위부가 모두 막힌 경우였다. 만약 막힌 부위가 나팔관의 원위부거나 중간 부위라면 카테타로 뚫기가 어렵다. 또한 근위부라고 하더라도 염증성으로 딱딱하게 막힌 경우는 역시 잘 안 된다. 뚫을 수 있으나, 없나는 카테타 요법으로 시도해 보면서 나팔관에서 느껴지는 촉감과 카테타의 흐름 방향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.

상기 환자분은 근위부가 세포 찌꺼기나 분비물,

점액 등이 뭉쳐서 나팔관이 막힌 경우로 카테타 요법으로 부드럽게 잘 뚫린 경우였다. 그러나 이렇게 한참을 물결로 인한 막힘으로 인해 자연임신을 못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경우도 꽤 많다. 따라서 나팔관이 막혔다고 무조건 시험관아기 시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막힌 부위, 정도, 상태를 파악하여 카테타 요법을 시행해 보고 안 된다고 판단된 경우만 시험관아기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.

재미있는 것은 이 환자분의 절친한 친구 분도 똑같이 이 치료법을 받아 함께 아이를 둘 씩이나 낳았다는 것이다. 좋은 인연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.